올 여름 진도 방문객 '대박' …67% 늘었다

7월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 이후 41만명 찾아
지역경제 파급효과 160억원…SNS 등 홍보 마케팅 한몫

올 여름 진도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6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7월19일 대명리조트의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 이후부터 9월 말까지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은 41만57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8937명 보다 67% 증가했다.

군은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과 함께 SNS에서 핫 플레이스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보배섬 진도군의 아름다운 풍광과 다양한 체험거리 등의 인기가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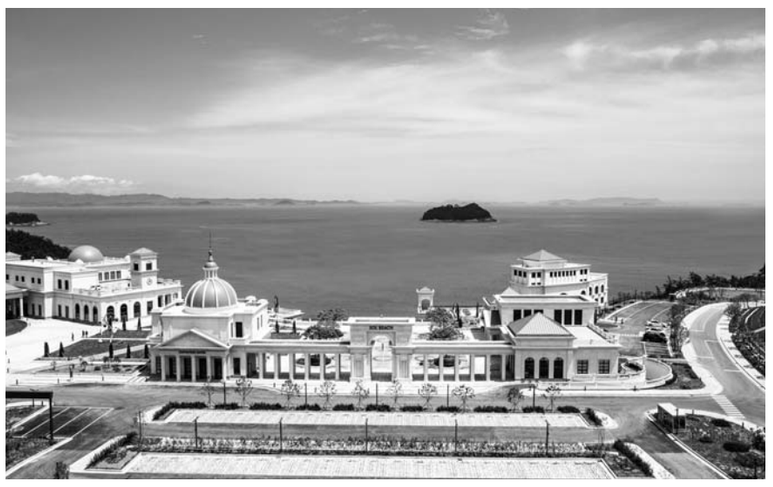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의 투숙객은 13만7120명으로 리조트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도군 농수특산품 판매장의 판매액은 9574만원이었다.

여름 성수기 이전부터 진도군은 관광지 편의시설과 도로 등을 정비하고 진도군만의 독특한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해 관광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했다.

여기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와 신문, 잡지, TV 여행 프로그램 등에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 수도권 관광객들을 진도군으로 불러들이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수려한 풍광과 깨끗한 해수욕장 수질, 다채로운 민속 공연, 친절한 운영, 저렴한 입장료는 방문객들에게 '가성비 갑'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매주 수요일 저녁 진도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열리는 진수성찬 공연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개최되는 '진도아리랑 오거리 버스킹'은 지역 관광객 유입에 힘을 보탰다.


진도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7월 개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 대명리조트의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진도군 제공〉

관광지별로는 진도타워가 2만4849명에서 6만8047명으로 173% 증가했으며, 진도개테마파크는 2만3298명, 운림산방 4만9818명 등 10개 관광지에 41만5720명이 방문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계절, 연중 관광객이 즐겨 찾도록 시즌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청정완도'에서 펼쳐지는 '가을빛 여행'

내일부터 해변공원·수목원 등 낭만축제·주부가요제 등 행사

남도의 가을바다를 배경으로 한 '2019 청정 완도 가을빛 여행'이 25일부터 27일까지 완도 해변공원과 다도해일출공원, 완도수목원, 청산도 등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추억과 낭만, 힐링 등 총 13개 테마와 6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개막 첫날인 25일에는 축제와 연계해 평생학습축제와 가을빛 낭만 주부 가요제가 열린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초청 공연과 완도사랑 건강걷기대회가 열리며 매직 쇼, 전복 경매, 팝페라 갈라쇼가 부대행사로 마련된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DJ7080 라이브 파티, 도립국악단 특별 공연 등이 열리고 완도 전복 해조류 특산품 등 50만원 상당의 종합세트가 주어진다.

행사장 주변에는 완도의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며 바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가을빛 낭만포차'가 들어선다.

또 해양치유산업 홍보관을 운영해 필라테스와 노르딕워킹, 꽃차 시음 등을 제공한다.

국내 최대 난대림 자생지인 완도수목원에서는 숲속체험과 작은 음악회, 난대숲 감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완도타워에서는 국화 분재 전시회가 열린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에서는 아름다운 슬로길을 배경으로 가을향기 버스킹, 짚신 걷기 체험, 낭만 고등어 체험 등이 마련된다.

김동교 청정 완도 가을빛 여행 추진위원장은 "올해 청정 완도가을빛 여행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축제가 되도록 여러 변화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김장고객 잡아라"…해남군, 절임배추 판촉 강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해남군이 해남배추 판촉에 나섰다.

군은 이마트에브리데이 전국 242개 매장에서 해남 절임배추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예약은 11월6일까지이며 예약 당일 약정된 금액으로 원하는 날짜에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연이은 태풍 피해로 배추 생육이 늦어져 가장 맛있는 배추로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배추가 충분히 자란 11월15일 이후가 적합하다.

해남배추로 김장을 담그는 적기는 11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다.

앞서 군은 지난 18, 19일 이마트에브리데이 부천SF점에서 해남배추 소비촉진을 위한 절임배추 판촉행사를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와 홍호림 이마트에브리데이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는 김치 담그기 및 시식과 함께 해남배추 사전예약 판매 홍보를 했다. 〈사진〉

해남배추는 중부지방의 재배기가 짧은 배추에 비해 70~90일을 충분히 키워내면서 쉽게 물러지지 않고, 황토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풍부한 영양으로 타 지역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진도군, 고품질 쌀 생산
'쌀 품질 분석 서비스' 운영

진도군 농업기술센터가 과학적인 쌀 품질분석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쌀 품질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달 초순부터 운영하는 쌀 품질관리실은 성분분석기, 품위판정기, 심미측정기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단백질 함량과 수분·아밀로스 함량 등 성분 검사, 쌀 품종 검사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품질 검사는 진도군 농업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쌀 500g을 깨끗한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최대 일주일 내로 쌀 품질 분석표를 받아 볼 수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해남군, 특화림 조성사업 선정 국비 등 12억 확보
화산면 방축지구 황칠나무 7만8000그루 심는다

해남군은 전남도 2020년 '지역특화림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연속 공모에 황칠특화림 조성사업이 선정돼 황칠 육성의 메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군은 2019년 공모사업을 통해 35ha의 황칠특화림을 조성한데 이어 2020년에는 25.2ha가 증가된 60여ha 규모로 화산면 방축지구 등 13개 지구에 황칠 특화림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 황칠특화림 조성사업은 3년생 이상 대묘 황칠나무 7만8000그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황칠특화림 단지에는 황칠나무의 산업화를 대비한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황칠나무를 심어 관리하게 된다.

군은 오랜 전통을 가진 해남 황칠나무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359ha, 56만4000그루의 황칠을 심는 등 황칠나무 재배를 규모화 해 연중 공급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황칠나무

인삼 및 가시오가피와 같은 파낙스(Panax) 계열의 상록활엽수로 나무인삼이라고도 불리며 남해안과 제주도가 주산지이다. 체내 독성물질을 배출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 면역력을 회복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산림 6차산업화의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다.

완도 해조류센터 '계단폭포' 랜드마크 부상

옥상 정원 정비 '치유쉼터' 제공…형형색색 경관조명도

완도 해조류센터가 계단폭포(캐스케이드·사진)를 조성해 완도의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완도군에 따르면 해조류센터 옥상 정원을 정비해 계단폭포를 조성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치유의 쉼터로 제공하는 등 해조류센터를 소통의 공간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

2014년과 2017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주제관으로 활용한 해조류센터는 평소에는 완도항 경관을 조망하기 위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그동안 계단식 옥상 정원에 초화류를 심는 등 볼거리를 조성해 왔으나 기능이 떨어지고 매년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되자 군은 계단폭포를 조성했다.

계단폭포 길이는 총연장 33m, 9개의 계단으로 시간당 약 50t의 폭포수를 쏟아낸다.

계단에는 형형색색의 경관 조명 시설을 설치해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계단 위 표면은 완도의 바다 풍경을 형상화한 아트타일을 설치하고 아래 부위는 모자이크 타일로 시각적인 단조로움을 보완했다.

하단 부위 집수정 상단에는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공식 마스코트인 해초와 미초 조형물을 설치, 박람회 홍보와 시설물에 대한 친근감을 더했다.

계단폭포 안전 난간에는 완도해조류박람회가 국제 행사로 개최함을 알리기 위해 세계 60개국의 국기를 게양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상가 1층 4거리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마트 운영 中**
- 급매 - ~~9억원~~ → 7억원(대출 2억 5천만원 포함) **임대 - 협의**

문의. 010-6834-7400